

## 2023년 2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 경기북부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예다움작은도서관/백정희	가재가 노래하는 곳/델리아 오언스/살림	우유가 비자 카야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갈매기마저 그녀를 버리고 떠날까봐 너무 무서웠다. 그러면 도저히 아픔을 견딜 수 없을것만 같았다. 하지만 갈매기들은 그녀 주위에 쪼그리고 앉아 회색 날개를 짝 펼치고 몸단장을 했다. 그래서 카야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2	마상공원작은도서관/김은미	그림으로 나눈 대화/글과 그림 전영근/남해의봄날	푸른색을 사랑한 화가 전혁림 탄생 백 년. 거장의 삶과 예술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를 아들의 기억으로 되살린 아름다운 그림 편지.
3	화전작은도서관/황보미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호프자런/김영사	이 세상의 모든 결핍과 고통, 그 모든 문제는 지구가 필요한 만큼을 생산하지 못하는 무능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어 쓰지 못하는 무능에서 발생한다.
4	호수공원작은도서관/김연희	우리 그림책 작가를 만나다/정병규/보리	그림책은 세대와 언어와 시대를 뛰어넘는 예술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이 책은 그 일에 자기 삶을 다했던 사람들, 자기 열정을 다 쏟아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5	와이시티작은도서관/김경진	(내 아이를 위한) 30일 인문학 글쓰기의 기적/김종원/ 상상아카데미	아무 때나 멈춰서 글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이 본 그 지점이 바로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된 출발선이니깐요. 규칙이 없으니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시작해서 끝내고 싶을때 마침표를 찍으면 됩니다.
6	햇빛21작은도서관/윤영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롤루 밀러 지음/곰출판	어떤 사람에게는 민들레가 잡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똑같은 식물이 훨씬 다양한 것일 수 있다
7	와이시티작은도서관/전선미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기적 아침 6분이면 충분하다)미라클모닝 /할 엘로드/ 한빛비	오늘은, 새로운 나로 거듭나기 위해, 더 나은 삶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나, 지금까지의 삶과 이별하기 가장 좋은 날이다.
8	모당공원작은도서관/김희정	페퍼민트/백은유/창비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다. 해원이 내게 미안할 일은 전혀 없다고. 해원에게 사과를 받아선 안 됐다.
9	비전작은도서관/황영수	고맙다/서정인/규장	매일의 삶을 신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명예 일까요? 돈 일까요? 이런 것들은 채워지기 어렵고 사라지기 쉬운 것들입니다

## 2023년 2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대구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그나라어린이도서관 마음이 흔들려서, 마흔인 걸 알았다 /김선호 지음/서사원	잠을 줄이라는 듯 무언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노력이 아닙니다. 멈추는 겁니다.
2	해봄도서관 빗돌머리/임명희산문집/삶창	챗터 2월~1950년서산출생 주인공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달간 서당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2월 한달 동안 주어진시간에 한자로 된책을읽기위해 하루에 일백자를 익히는 목표를설정해놓고 천자문 명심보감을 땀다. 본문중에~~2월이 다른 달보다 3일이나 적어서 속이 상했던 일도 잠시 그래도 그 28일은 내게 유익하여 생애 전체를 따라다니며 나를 도왔다는 걸 느낀다.
3	더불어숲도서관 사라진 소녀들의 숲/허주는/ 미디어창비	조선의 제주에서 사라진 13명의 소녀들, 그리고 그들을 쫓는 수사관의 이야기입니다.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더 아픈 역사,그 아픔 속을 살았던 소녀들의 애처로운 민낯에 읽는 내내 가슴이 시렸네요.그래도 설렘과 용기, 상처의 치유, 화해와 용서가 있어 무겁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 혼자서 한나절 보내고 싶을 때 만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4	마을도서관햇빛따라 스노볼/박소영/창비	너의 이름이 궁금해. 넌 네 이름을 잃지 마. 너로 살아가는 일을 함부로 포기하지 마.
5	솔방울작은도서관 천원을 경영하라/박정부/ 쌤앤파크스	原子와 같은 작은 성실함이 내 운명을 바꿨다. 국민가게 다이소의 성공 신화라고 하기에는 열정적이고 치열하고 꾸준한 초심을 유지하기위한 경영자의 철학이 오롯이 담긴 책이다. 책 판매 수익은 좋은 곳에 전액 쓰인다고 한다. 누구나 한 번은 읽어봐도 좋은 책! 실제 경험에서 우러난 문장(공감되고 명심되는) 들이 많아요.
6	김경희 하루교양공부,나와 세계를 잇는 지적 생활습관 /전성원/유유	살면서 한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교양을 만나고 있다.낯선 길인데도 든든한 길잡이가 있어 전혀 두렵지않다.
7	책마실작은도서관 걷는 독서/박노해/느린걸음	삶의 길잡이가 되어줄 박노해 시인의 문장 423편과 함께 시작합니다.

## 2023년 2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사무국/제주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현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황보름/클레이하우스	여행지에서 모르는 길을 걸을 때의 기분이 나더라고요. 골목골목을 기웃기웃하며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기분, 낯설어서, 모르겠어서 설레는 기분, 이런 기분을 느끼려고 사람들은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휴남동 서점이 사람들에게 그런 곳이 아닐까 싶었고요.
2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진희 주의력 연습/아미시 자/어크로스	할 일은 많은데 이것저것 다른 생각으로 빠지고,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주의를 집중할 수 있을까요!^^ 올해는 '주의력 연습'으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3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이은주 슬픔의 방문/장일호/낮은산	나는 사랑을 '어떤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지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4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김혜령 여우요괴/정진/킨더랜드	여우요괴의 소원은 사랑이었네. 무표정 김원생 귀음
5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양지선 시트론호러/구소현/문학과지성사	근사한 깨달음. 자만은 금물. 해외로 나가는 문이 열림. 가까운 사람과 불화로 멀어지게 될 수 있으니 주의. 건강에 적신호. 행운의 색: 연두색, 분홍색. 행운의 열쇠: 피스타치오
5	제주설문대어린이도서관 이름을훤친소년/이꽃님/주니어김영사	예비중1 아이들과 <이름을훤친소년>을 읽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이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씨개명을 다룬 역사책입니다.

## 2023년 2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 서울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김지현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이지영/ 쌤 앤파커스	나는 과거를 꼭 잡고 놓지 못하고 있구나, 집이 좁은것도 아닌데 내 공간이 없구나.
2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박미현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글베우/강한별	1. 매일 특별하지 않아도 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거니까 작은 일에 소소하게 웃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돼. 2. 당신이 열심히 살아왔어도 힘듦은 찾아온다. 잘 살아 내고 싶었지만 힘듦이 찾아온다. 그건 당신 탓이 아니다. 당신 탓이 아니다.
4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안해나	걷기의 말들/마녀체력/도서출판 유유	멀리 있는 미래를 막연히 쫓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게 우선이다.
6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이성희	두번째 지구는 없다/타일러 라쉬/알에이치 코리아	밥집(주식)보다 커피집이 더 많고 커피는 무한한 레시피로 지속가능한데 책을 읽으며 우리의 지구는 그 커피를 감당하기위해 지속가능하지 못한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피 한잔에 대한 많은 생각과 지구를 걱정하는 저자에 대한 이야기 등 생활 속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더 깊이 있게 돌아보게 한다. 요즘은 커피한잔 즐기고 앞차를 마시며 사색의 시간을 즐기려 노력중이다. (이렇게 하는게 맞으려나..... 찾임도 공정무역이란게 필요한 영역인건지는 모르겠다)

## 2023년 2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 울산경주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박지혜(책누리)	내 마음은 존-버 중입니다/월시/풀빛	포기는 나쁜게 아니야,시작의 또 다른 이름이지.
2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이진영(극동푸른)	우리, 편하게 말해요/이금희/웅진 지식하우스	사람과 사람사이 거리가 너무 멀어지지 않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3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서정선(책사랑)	가녀장의 시대/이슬아/이야기장수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슬아의 꿈은 개천에서 난 용이 되는 것이었다.
4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이윤진(햇살)	봄날의 씩씩함/탁경은/여섯번째 봄	네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 원하는 목표도 다 이루면 좋겠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네 계획이 어그러진다면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줄거야
5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하태연(책가방)	돈이 아닌것들을 버는 가게/남형석/난다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다. 십년 넘게 반복되던 업무의 틀 바깥에 잠시 누워 그림책 속 생쥐"프레드릭"처럼 햇볕과 색깔과 이야기를 모으기 위해.
6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소은미(양정달팽이)	올리앤더/서수진/한겨레 출판	우리는 추방당할꺼야. 내가 자라난 땅에서. 내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언어를 하는 나라에서.
7	울산 하랑작은도서관/배수경	디어라이프/ 앨리스 먼로/문학동네	작가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뒤돌아 보게 하며,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과정에 있어 인생의 모든 행동과 선택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듯, 모호하며, 제 각각 독자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삶에는 정답이 없다는 듯, 모호하면서도 긴 인상의 여운을 남기는 책이었다.

## 2023년 2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 충청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다올책사랑방/김은정	너도 나도 손갈들고 어서오너라/양재홍/대교북스 주니어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가는 맛있는 우리 음식이 한가득 들어있는 책입니다 음식 이름으로 시처럼 은유있게 그림, 사진과 곁들여진 정겨운 책이네요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는 언제부터 담가 먹었는지,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는 왜 팔죽을 수어 먹는지,김치,장,떡등 전통음식을 세시 풍속과 절기에 따라 특별한 의미가 담긴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너도나도 손갈 들고 어서 오너라 처럼 꽃피는 봄이 오면 비빔밥 만들어 함께 나누고 싶네요
2	해바라기/박면우	나만 괜찮으면 돼, 내인생/이진이/위즈덤하우스	애써 바꾸지 않아도 그냥 나로 살아도 오늘부터 남들 말고 나에게 사랑받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 표지의 문구처럼소소한 것에서 찾는. . 나를 사랑하게 되는책입니다. 자꾸 주눅들고 번아웃이 올 때 친한친구가 툭 던지는 말처럼 잔잔하지만 큰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3	내보물1호/백영숙	가재가 노래하는 곳/델리아 오언스/살림	"사실, 사랑이란게 잘 안될 때가 더 많아. 하지만 실패한 사랑도 타인과 이어주지.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건 그것뿐이야. 타인과의 연결 말이야."처럼 허 버려져 혼자 자란 어린 소녀의 성장이 가슴 아픈 소설입니다. 철저히 외로운 그 소녀를 성장하게 하는 힘은 사랑이었습니다.
4	한울/최수현	잊었던 용기/박보람/창비	곧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이 책은 긴 겨울방학이 지난 후 서먹해졌던 친구와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용기내어 다가가는 과정을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그려낸 책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저서 '나는 왜 내편이 아닌가' 에서 용기는 나의 이야기를 꺼내놓을수 있는 힘이라고 하며 나라를 구하거나 세상을 뒤엎는 영웅의 용기가 아닌 진심으로 말할수 있는 평범한 용기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어른들도 인간관계가 어렵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긴 겨울방학을 끝내기 위해, 서먹해진 지인과 가족에게 먼저 용기내어 손을 내밀어 보는것은 어떨까요?
5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푸른숨/오미경작가	상군 해녀를 꿈꾸는 어린 영등이 해녀 삼촌들과 함께 바다에서 삶을 배우면서 제주 해녀의 역사를 보여주는 청소년 소설입니다. '권리, 의무, 자유'가 불꽃처럼 타오른 해녀들의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6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나종호/아몬드	나종호 선생이 뉴욕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와 그 환자들을 만나며 자신이 느낀 소감들을 따스하게 소개하는 에세이입니다. 낙인과 혐오를 넘어 이해와 공존으로 가고자 하는 저자의 마음에 감동하며 읽고 있습니다.
7	초롱이네/오혜자	강물이 흘러가도록/바버러 쿠니/시공주니어	강을 참 좋아합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도 좋아하고, 그림책 <강물처럼 말해요>를 보면서 '강'이 말을 하는 방식을 좋아했나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버러 쿠니의 그림은 언제보아도 다정하고 기억을 더듬게 하는 힘이 있는데 이 책은 더 강하게 '시간소환마법'을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강물에 잠긴 어릴 적 놀던 마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우리지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청주에 있는 그 유명한 청남대와 대청호는 댐을 만들기 위해 마을이 수몰된 곳입니다. 현실에는 없고 마음속에만 남은 마을이 무슨 의미가 있고 힘이 될까 생각했었는데, 그림책 한 권이 사람들 사이 겹겹의 시간을 펼쳐 보이며 이래도 의미가 없냐고 묻네요. 그래서 올 해 난 이 책으로 시작!!